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1. 4. Vol. 311

기획특집_ 양양 길을 따라 걸어 봄

질병관리청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 접종대상 : 75세 이상 어르신 (1946. 12. 31. 이전 출생자)
- 접종시기 : 예방접종센터 개소(4. 22.) 이후
- 접종장소 : 양양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일출예식장 1층)
  ※ 예방접종 신청을 하신 어르신에 한하여 접종일 별도 안내
- 문 의 처 : 읍 · 면사무소 총무부서

양양군

양양소식
Vol. 311

CONTENTS

COVER STORY

남대천 벚꽃길

희망양양

04 **기획특집_** 양양 길을 따라 걸어 봄

08 **이슈앤피플_** ㈜일양 김옥화 대표

11 **마을가는 길_** 손양면 여운포리

14 **맛있는 양양여행_** 양양에 '창꽃'이 피면

의기양양

16 YANGYANG NEWS

19 **명의가 전하는 건강이야기_** 위암의 예방

20 **의정소식_**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조선 정조 때 양양도호부가 양양현으로 강호된 배경은?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군

열린양양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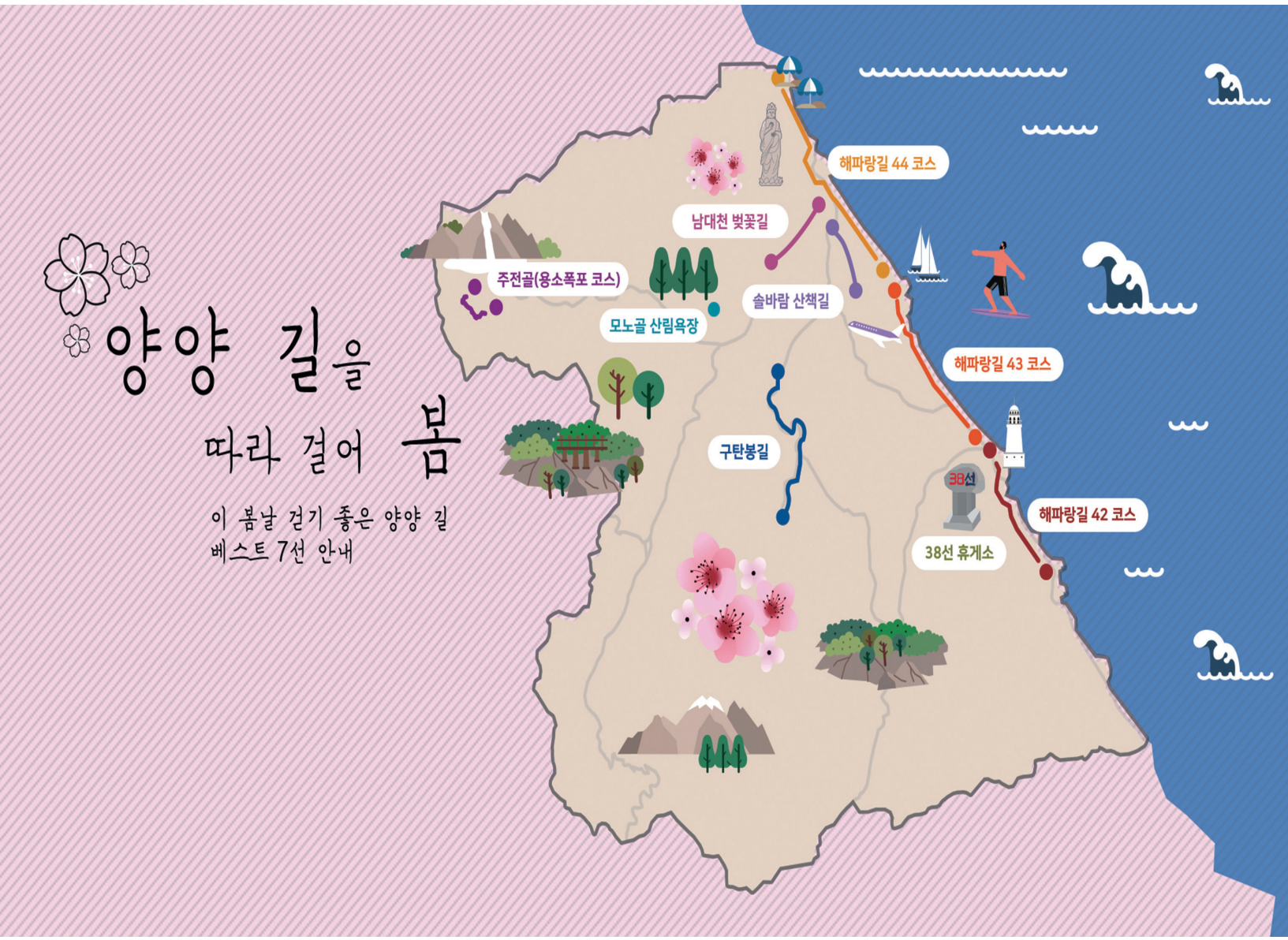
28 **공익광고**

양양소식 · 311호

| **발행일** 2021년 4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tomtom777@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봄날, 양양을 걸으며 눈과 귀와 마음을 깨우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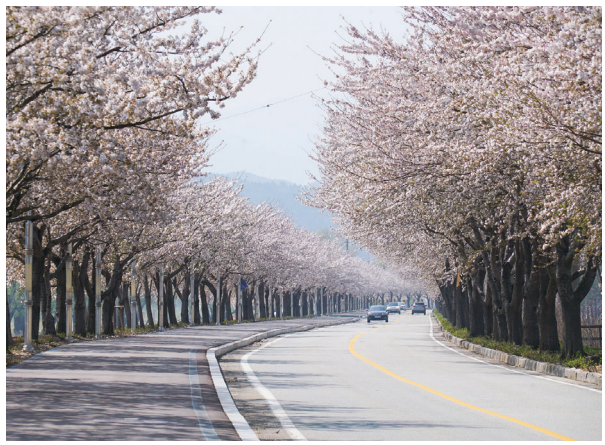
춘곤증에 나른해지는 봄날, 자연은 그 어느 계절보다 부지런하다. 겨우내 무채색이던 나무는 가지마다 초록빛이 점점 늘어나고, 이파리보다 먼저 나온 꽃은 혹독했던 겨울을 어찌 보내고 이 고운 빛깔들을 만들어냈을까 싶다. 생동하는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면 마음도 봄빛처럼 화사해질 것만 같다. 이 봄날 양양의 산과 바다, 강가를 걸으며 눈과 귀와 마음을 깨워보자. 양양 어디를 걸어도 좋지만, 이 봄 걷기 좋은 양양 길 베스트 7선을 꼽아봤다. 느리게 걸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봄 풍경을 눈에 담다 보면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도 재충전될 것이다.

이 봄, 눈이 시원해지길

* 양양대교 ~ 낙산해변 3km / 1시간(난이도 쉬움 ★☆☆)
* 볼거리 : 낙산해변, 낙산대교, 남대천 생태공원

남대천 벚꽃길

양양대교를 출발해 낙산해변까지 이어지는 남대천 벚꽃길은 봄철 벚꽃터널이 된다. 벚꽃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른편에 남대천 생태공원이 펼쳐진다. 가을철 억새 군락도 좋지만, 벚꽃이 필 무렵 버드나무가 연초록으로 하늘거리는 풍경도 잘 어울린다. 잠시 벚꽃 길에서 멀찍이 떨어져 남대천에서 올려다보는 꽃길도 장관이다. 한 시간가량 걷다 보면 길은 바다로 향한다. 낙산대교에 도착해 뒤를 돌아보면 설악산 대청봉이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봄과 겨울이 공존하며, 분홍 벚꽃과 파란 바다와 버드나무의 연초록, 대청봉의 하얀 눈이 어우러진 풍광에 눈이 시원해지길.



해파랑길 42코스

* 죽도정 ~ 하조대 해변 9.9km 3시간 30분
  (난이도 보통 ★★☆)
* 볼거리 : 죽도정, 죽도 전망대, 하조대, 하조대 전망대

태양과 걷는 사색의 길, 해와 바다를 벗 삼아 걷는 해파랑길은 부산에서 출발해 고성까지 이어지는 770km 구간이다. 이 가운데 42코스는 죽도해변이 내려다보이는 죽도정 입구에서 38선 휴게소와 하조대를 지나 하조대 해변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양양 8경 중 죽도정과 하조대, 두 곳이 포함돼 있는 만큼 경관이 아름다운 길이다. 사시사철 푸른 송죽과 기암절벽, 바다가 어우러진 죽도정과 하얀색 철제 구조물의 죽도 전망대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애국가 영상에 나오는 소나무로 유명한 하조대까지 절경을 감상하며 걷기 좋다. 하조대를 나와 해변 끝에 위치한 하조대 전망대에 오르면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 바다 위를 걷는 듯 아찔하다. 길 곳곳의 경치 좋은 전망대에서, 인생길도 멀리 내다보고 조망해 보길.

이 봄, 마음을 어루만지길

주전골(용소폭포 코스)

* 오색약수터 ~ 용소폭포 3.2km / 1시간 30분
(난이도 보통★★☆)
* 볼거리 : 오색약수, 성국사, 주전골 계곡, 용소폭포

오색약수터, 성국사, 주전골 계곡과 용소폭포까지 완만하게 이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다. 톡 쏘는 맛이 강하면서도 철분 성분이 많은 오색약수로 목을 축이고 출발해보자. 특히 주전골 계곡은 남설악의 큰 골 가운데 가장 수려한 계곡이다. 곳곳에 기암괴석과 폭포가 장관이다. 오랜 세월 자연이 빚어낸 작품들 사이를 걷노라면 인간의 존재와 시간이 한없이 작아진다. 자연의 품에서 마음을 어루만지길.

구탄봉길

* 월리(남대천로 107-31) ~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2km/ 2시간
(난이도 보통 ★★☆)
* 볼거리 : 구탄봉 전망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전망대

고려초기 고승 도선국사가 아홉 번 올라 아홉 번 감탄했다는 구탄봉을 지나 송이밸리 자연휴양림까지 이어진 길이다. 길은 이리저리 구불구불 휘어져 완만한 경사도를 유지하면서 정상을 향해 간다. 전망 좋은 산등성이마다 쉼터와 정자가 있어서 쉬어가기 좋다. 제일 높은 구탄봉 전망대에 오르면 양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에서 오른편 안으로 들어가면 송이를 테마로 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이 있다. 종착지인 자연휴양림 내 전망대는 시야가 더 넓어진다. 설악산부터 양양 시내와 남대천, 바다까지 한 편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탁 트인 시야만큼 마음도 더 넓어지길.

모노골 산림욕장

* 솔숲계단(양양읍 내곡리 214-4) ~ 양양향교 뒤편 4.6km / 2시간(난이도 쉬움 ★☆☆)
(A코스 1.8km : 솔숲계단~모노골 샘터, B코스 2.8km : 양양향교 뒤편 ~ 모노골 샘터)
* 볼거리 : 모노골 샘터, 울창한 소나무 숲, 양양향교

모노골 산림욕장은 사계절 내내 양양군민에게 사랑받는 길이다. 완만한 경사의 소나무 숲길로 양양 시내 방향에서 접근하기 쉬운 A코스는 솔숲계단에서 모노골 샘터까지 이어져 있고, B코스는 양양향교 뒤편에서 모노골 샘터까지 이어진다. 어디에서 출발하든 모노골 샘터에서 만나게 된다. 소나무 숲 사이사이 산철쭉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에서 삼림욕으로 마음도 씻어보길.

이 봄, 귀가 맑아지 길

* 수산항 ~ 속초 해맞이공원 12.3km / 4시간 30분 (난이도 쉬움 ★☆☆)
* 볼거리 : 오산리 선사유적지, 낙산사, 정암해변 몽돌소리길

해파랑길 44코스

낚시객의 성지이자 요트의 천국이기도 한 수산항을 출발해 남대천 하구를 지나 속초 해맞이공원까지 이어진 길이다. 출발지에서 900m 정도 걷다보면 왼편에 오산리 선사 유적지와 박물관이 나온다. 양양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남대천 하구를 지나 속초 방향으로 걷다 보면 낙산해변과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낙산사가 길 오른편에 있다. 관동팔경 중 하나로 꼽히는 낙산사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낙산사를 지나 설악해변에서 정암해변을 잇는 몽돌소리길이 이색적이다. 정암해변은 동해안에서 유일한 몽돌해변으로 1.2km의 몽돌소리길이 조성돼 있다. 촤르륵, 파도가 몽돌을 어루만지는 소리가 힐링이 된다. 이 구간을 걸을 때면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여보길.

솔바람 산책길

* 송전해변(송전리 21-7) ~ 남대천 하구(가평리 29-4) 2km / 1시간(난이도 쉬움 ★☆☆)
* 볼거리 : 송전해변, 남대천 하구

양양에 새로운 길이 생겼다. 수산항에서 출발하는 해파랑길 44코스를 20분 남짓 걷다보면 오른편으로 울창한 소나무 숲에 가려진 송전해변이 나온다. 송전해변 소나무 숲길을 따라 남대천 하구로 이어지는 솔바람산책길이다.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 울창한 송림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탐방로를 만들었다. 걷다보면 파도소리와 울창한 소나무 사이를 스치는 솔바람 소리가 귀를 맑게 해준다. 바다내음과 섞인 소나무 향이 솔바람을 타고 실려 온다. 길 중간 중간에 놓인 통나무 의자에 앉아 자연과 명상에 빠져보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꿈꾼다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여 년 건설업계에서 여성 CEO는 드문 일이었다. 양양의 향토기업으로 레미콘과 아스콘을 생산하는 (주)일양의 김옥화 대표는 부드러움과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특유의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강원경제인대상 특별상, 지식경제부 장관표창 등을 수상하며 도내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밝은 목소리와 미소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김옥화 대표를 만났다.

전업주부에서 레미콘 회사 CEO로

양양과 강릉에서 레미콘과 아스콘, 골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 (주)일양은 1989년 설립 이후, 표준협회에서 선정하는 KS마크와 ISO를 획득하는 등 품질을 인정받으며 든든하게 자리 잡은 향토기업이다. 김옥화 대표는 2003년부터 20여 년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주)일양을 이끌어 왔지만, 처음부터 건설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었다.

"남편과 사별하면서 남편이 운영하던 레미콘 회사를 갑자기 이어받아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전업주부로 살았던 제가 회사를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회사를 운영한지 어느덧 20년이 다 돼 가고 있네요."

"처음이니까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대표의 의사결정이 바로 이익 또는 손해와 직결되는 만큼 초반에 시행착오로 손해도 많이 봤지만, 인생을 배우는 고액과외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직원과 함께 이익을 나누고 사회에 이바지 한다는 생전의 남편의 기업 철학을 존경해온 김옥화 대표는 남편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회사에서 반드시 그 뜻을 이어가고 싶었다. 평범한 전업주부였지만, 늘 하고 싶은 게 많았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못 다한 공부도 하고 싶었다. 큰 딸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같은 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해 경영학 공부를 했던 것은 훗날 회사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장담할 수 없어진 회사의 앞날을 두고 처음에는 직원들도 떠날 준비를 했었다. 경영 초기 현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김옥화 대표는 각종 모임과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등 배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고,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강한 건설업계에서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처음이니까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대표의 의사결정이 바로 이익 또는 손해와 직결되는 만큼 초반에 시행착오로 손해도 많이 봤지만, 인생을 배우는 고액과외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필요한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상처를 다독이는 일을 했던 경험은 조직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남편과 함께 땀흘려온 직원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감사의 인사와 앞으로의 다짐을 전달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과 심성수련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회의와 교육을 진행했다. 해마다 기업 운영에 동력이 될 주제를 정하고 함께 실천해 나갔다. 낯설어했던 직원들도 개인의 성장과 소통의 기회로 삼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혁신 및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직원과 사회가 상생하는 기업

과열경쟁 등으로 최근 레미콘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옥화 대표는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며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평균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고민도 이어가고 있다. 회사의 여유 공간을 도서관으로 만들어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꿈꿨지만, 대형장비들이 오가는 위험이 있어 방향을 바꿨다. 대신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향토기업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주)일양의 소재지인 장승리 마을에는 복지회관 부지를 선뜻 기증했으며, 마을 진입도로 꽃길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부지와 경작용 토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사회적 환원은 향토기업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중학생 때부터 인연이 되어 지원을 했던 학생이 이번에 간호학과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그림과 글로 작품을 내고, 혹시 판매 수익까지 이어진다면 그때에도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일에 쓰고 싶습니다."

7년 전 수필 작가로 등단하면서 평소 좋아하는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있는 작품을 구상했지만, 그에게는 아직 요원한 일이다. 사무실을 빼곡하게 채운 표창장과 임명장만큼이나 아직도 김옥화 대표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회사를 이끌어 온 김옥화 대표, 앞으로도 양양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빛나는 자리를 지켜주길 기대한다.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손양면 여운포리

집집마다 고운 풍경 스며든 정겨운 마을
흥 많은 주민들의 신명나는 동네 만들기
포용하고 화합하며 함께 일궈가는 삶의 터전

여운포리(如雲浦里)는 길을 품은 마을이다. 군도 5호선으로 낙산지구와 연결되어 있고, 하조대와 수산항을 잇는 해파랑길 43코스에 닿아 있는 곳이다. 유명 관광지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하는 마을이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냥 스쳐 가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집집의 담장을 예쁘게 수놓은 벽화와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꽃들을 보며 느긋하게 산책을 즐겨도 좋은 동네이다. 천천히, 느리게 여운포리의 숨은 매력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로 행복지수 상승

손양면과 현북면의 경계에 자리한 여운포리는 30세대 57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고 조용한 마을이다. 벼농사가 주업인 평범한 농촌마을이었지만, 8년 전 담장벽화 조성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3년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어오며 마을의 특색을 하나씩 발굴해 가고 있다.

담장벽화는 여운포리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노후한 담장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조성한 벽화는 눈에 띄지 않던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일명 인생사진을 찍기 위해 찾아오는 젊은 관광객들도 많았다.

여기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힘을 모아 정성껏 가꾼 도로변 꽃길은 마을 풍경에 화사함을 더한다. 지난해 봄에 심은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가 여름과 가을에 장관을 이루었다며 주민들은 뿌듯한 소감을 전했다. 이신권 이장은 4월부터 마을 경계석 위에 화단을 놓을 예정이라며 마을회관 앞마당에 쌓인 화분들을 보여준다. 과연 올해 여운포리의 꽃길은 어떤 모습일지 내심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택호 달기 사업도 진행했다. 택호는 예로부터 집주인의 벼슬 이름이나 처가 또는 본인의 고향 이름에서 유래한 그 집의 고유한 이름이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신권 이장의 택호는 '본토박이집'이다. 그밖에 감나무집, 길건너집, 소돌집, 삼부자집, 철이와 옥이네집 등 각 세대마다 특징이 살아있는 택호가 보는 이에게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마을회관과 마을정자의 택호는 각각 '여운포당'과 '청유월'이라고 지었다.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색다른 운치가 느껴진다.

담장 밑에 꽃이 만발하고 집집마다 고유의 이름이 붙은 마을의 풍경이, 소소하지만 정겹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손으로 마을의 자랑거리를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행복지수까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밀어주고 끌어주는 환상의 팀워크

인구 규모는 작아도 여운포리 사람들의 단결력은 여느 마을 못지않다. 8년 전 여운포리로 이주해서 펜션을 운영 중인 권소현 씨는 주민 간의 친목과 단합을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꼽는다.

"시골이라고 해도 마을 사람들이 단합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이장님을 중심으로 마을 분들이 굉장히 협조를 잘하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흥이 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분들이 참 따뜻하세요.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잘 어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셔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햇수로 20년째 마을 이장직을 맡아 온 이신권 이장은 오랜 경력과 책임감으로 마을 주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장이 솔선수범해서 마을 일을 열심히 하니 주민들도 내 할 일을 제쳐두고 능동적으로 동참

하는 것이다.

이신권 이장의 권유로 여운포리 최초 여성노인회장과 여성 반장에 취임한 양정순 노인회장과 박춘녀 반장은 마을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이신권 이장은 오히려 노인회장과 반장을 비롯해 김진일 개발위원장과 김정순 부녀회장 등 마을회 임원들의 든든한 뒷받침 덕분에 마을을 이끌어 올 수 있었다고 고마워한다.

이신권 이장이 앞으로 꼭 이루어내고 싶은 마을의 숙원사업이 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 화단을 조성해 마을만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군도 5호선이 지나가는 여운포리는 여느 마을보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으로, 길을 한 번 건너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마을 주민의 사고 우려도 있다. 여운포리에 유독 과속방지턱과 반사경이 많은 이유이다. 이신권 이장은 마을 곳곳에 표지판까지 세워 운전자들에게 서행을 당부하고 있지만, 인도가 없는 곳이라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행히 올해 수산항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면, 향후 통행 차량도 분산될 것으로 보여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길을 기대할 수 있을 듯싶다. 그때가 되면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또 한 번 힘을 모아 오랫동안 꿈꿨던 마을의 풍경을 이루어 낼 것이다.

각기 다른 음(音)이 모여 이루는 협화(協和)

2019년부터 진행한 마을 농악은 주민 간의 화합을 이루어 낸 일등공신이다. 손양면 농악보존회에서 상쇠를 맡고 있는 이신권 이장은 마을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주민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대상 농악 교육을 추진해왔다.

"과연 주민들이 잘 따라와 줄 것인지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까 호응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70대인 우리 노인회장님도 그 연세에 북을 잡으세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완벽하진 않아도 가락을 하나하나 익히면서 신나게 배우는 중입니다. 의상과 악기도 보유하고 있고 마을 농악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엔 '덩'인지 '쿵'인지 기본 장단조차 몰랐던 주민들이 지금은 어디서 장단 소리만 들려도 어깨춤이 절로 나올 정도로 농악에 심취했다. 주민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게 신기하고, 자주 모여 연습과 뒤풀이를 하다 보니 이웃 간의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2019년 추석 때와 2020년 2월 초하루 영동날에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올해에는 집집마다 돌며 지신밟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다며 다들 아쉬워했다. 이신권 이장은 올해 마을 농악 활동에 더욱 집중할 생각이다. 강사를 초빙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52시간 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농번기를 피해서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연습도 할 계획이다.

약속된 장단 안에서 서로 다른 악기의 소리가 모여 풍성한 농악의 가락이 완성되듯이, 여운포리 주민들도 서로 호흡과 보조를 맞추며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일구어 가고 있다. 흥이 차오르고 어깨춤이 절로 나는 신명이 여운포리에 가득하길 희망한다.

〈**글 · 사진** : 편집부〉

양양에 '창꽃'이 피면

시어머니 따로 며느리 따로 놀던 삼월 삼짓날의 '화전놀이'와 '꽃지짐'

모란처럼 풍염하지 않으며, 백합처럼 순결하지 못하고, 매화같이 고매함은 없지만 선대(先代)로부터 지천(至賤)에 핀 것이라 해도 함부로 하대(下待)를 하지 않았으니, 어느 후일(後日)에는 나라꽃이 될 뻔 했던 진달래가 피었다. 양양에서는 샛바람을 맞아야 피기 시작하는 봄꽃이기도 하다. 꽃잎은 먹을 수도 있고 약에도 쓸 수 있다며 양양에서는 '창꽃'이라고 하던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겹꽃이 아니라 통꽃을 매달고 말이다. '창꽃'은 비단 봄을 알리는 '환영의 뜻'만이 아니다. 삼월 초사흗날인 삼월 삼짇날에는 떡과 술의 재료가 되어 맛보다는 풍미를 느끼게 해주던 화전(花煎)놀이의 대표적인 절식(節食)음식이 되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풍습과 음식은 분홍(粉紅)으로 지천이면 양양에서도 남자보다 여자들만의 큰 명절로 화전(花煎)놀이와 화전(花煎)음식을 즐겼다.

며느리의 한나절 외유도 눈감아 주던 화전놀이 풍습

'꽃놀이'라고도 하였던 '화전(花煎)놀이'는 땅의 절반은 산이고, 바다여서 먹을 것이며, 볼 것이며, 절기(節氣) 또한 예부터 허투스럽지 않게 갸륵한 양양에서도 '상춘(賞春)의 봄'이 들면 여자들이 즐겼던 놀이문화 풍습이였다. 그 놀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곱기도 하고 풍각스러웠다.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삼짇날 무렵을 전후하여, 부녀자들이 어느 화창한 날을 잡아 진달래나 생강꽃 아래에서 뒤집어 놓은 솥뚜껑에 꽃잎과 나물 잎으로 모양을 낸 화전(花煎)을 부쳐 먹으며 한바탕 속 후련하게 놀았으니 말이다. 꽃이 피어야 하고, 꽃이 있는 자리라야 하고, 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놀이라 하여 '화류(花柳)놀이'라고도 하는데 그 놀이의 풍류가 생각만 해도 예쁘다. 이 날 먹는 음식을 여러 꽃잎으로 노릇하게 기름에 지진 화전(花煎)이라 하는데, 이 음식 또한 얼마나 예뻤던지 '꽃달임', '꽃지짐'이라고도 했다.

화전놀이에는 그들만의 금기풍습도 있었다. 제도적 규율은 아니지만, 남자들은 주책없이 여자들 놀이에 절대 따라 나서지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눈치껏 며느리를 따라 가지 않았으며, 시어머니 따로, 며느리 따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꽹과리를 두들기며 꼬박 한나절을 놀던 것이 화전놀이의 법칙이기도 하였다. 남자들의 화전놀이와 여자들의 화전놀이가 다른 점이라면, 남자들에게는 '추렴'정도였지만, 여자들에게는 이 날만큼은 집안 살림의 고단함이나 시집살이의 서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부녀자들만의 공개적인 단체 나들이라는 점이다.

갈천약수와 오색약수의 안주로 즐겨 먹던 화전과 장떡

화전놀이는 신라시대 때부터 전해지고 있는 봄을 맞이하는 '상춘(賞春)의 큰 명절'로, 양양의 여러 마을에서도 화전놀이를 즐겼다. 특히, 양양 사람들이 화전놀이 때나 특정한 날에 찾던 장소 두 곳이 있었다. 명산명수(名山明水)의 갈천약수터와 오색약수터였다. 이 곳은 '장떡 추렴'과 '화전놀이' 그리고 수확할 때까지 농사가 거의 끝나갈 무

렵이라 '논두렁도 안 보러간다'는 '백중(百中)'날에 잔치장소로 우선으로 찾던 곳이였다. 교통편이 없었던 당시에는 현남면 사람들은 물론 강현면 물치리 사람들까지 40여km 걸어가 아예 하룻밤 동안 놀다 오기도 하였던 곳이였다. 양양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특별히 이곳의 약수터를 찾게 된 것은 찹쌀가루를 기름에 지진 '화전'이나 고추장과 된장을 풀고 지져 먹던 '장떡'과 '약숫물'의 궁합 때문이었다. 약숫물과 장떡의 궁합을 예부터 양양에서도 개성사람들처럼 '약수(藥水)안주'로 여기며 즐겨 먹었는데, '약수안주'는 말 그대로 '약숫물의 안주가 되는 음식'이라는 뜻이다.

비단 약숫물 안주로 '장떡'뿐만 아니라 '화전' 또한 약숫물과 좋은 궁합의 음식이었는데, 약숫물만 먹거나, 기름에 지진 '화전'이나 '장떡'만 먹게 되면 배탈이 난다거나, 더러는 약숫물을 많이 먹기 위해서 약숫물과 같이 화전이나 장떡을 먹게 된 이유이다. 문뜩 그때의 양양 사람들이 봄꽃으로 '개락'이던 어느 봄날에 이토록 즐겼던 '놀이문화'와 '놀이음식'에 대한 풍습이 사뭇 그리운 것은 비단 섭섭한 추억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글 · 사진 : 강원도 외식저널대표 황영철

양양뉴스
YANGYANG NEWS

양양군, 지난해 1,500만 명 찾아 방문객 증가율 전국 1위

양양군이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 방문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빅 데이터 플랫폼인 '데이터랩'이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의 지난해 방문실태를 분석한 결과, 양양군이 2019년 대비 방문객 수가 10% 늘어나며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양양군을 찾은 외부인은 1,522만6,306명으로 전년 1,385만7,308명보다 136만8,998명 증가했고, 현지인도 전년도 722만7,528명보다 132만876명 늘어난 854만8,4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1년 동안 양양군의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청정양양에서 서핑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낙산사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역시 안전하다는 인식이 더해진 것으로 보여 진다.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준비 '박차'

양양군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양양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노인 4,012명(2월말 기준)이다.
군은 양양읍 일출예식장에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하고, 4월 22일 개소하여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도보나 차량 이동이 가능한 어르신을 우선 접종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추후 방문접종 등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접종 대상자가 확정되면 확보한 백신물량에 따라 읍 · 면별 대상자 규모와 이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접종날짜를 특정 요일 또는 시간대로 지정하여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전문의료 상담으로 군민건강 돌본다

양양군 보건소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를 확대 운영한다.
올해 1월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보건소장(외과 전문의) 채용으로 찾아가는 전문 의료 상담을 통한 보건 ·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권성준 보건소장은 지난 3월 2일부터 매주 화 · 목요일, 보건소와 5개면 보건지소를 직접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

보건소 진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층 보건교육실에서 진행하며, 5개면은 매주 목요일 면 보건지소에서 방문보건 대상자를 위주로 사전예약 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진료내용은 위장관 관련 진료와 처방, 전문의료 상담, 방문보건대상자 진료 등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 강화

양양군이 최근 인근 시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양양군도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 조치에 나섰다.
우선 3월 24일부터 양양 5일장을 휴장하고, 시장상가 내 방역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관내 실내 공공체육시설도 휴관에 들어갔다.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체력단련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센터, 군 실내체육관, 읍면 게이트볼장은 3월 20일부터 휴관중이다. 다만 실외 체육시설은 개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수 인원이 운집하는 읍 · 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잠정 연기했다.

아울러 관내 22개 사업장, 124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려 검사를 완료하였다.
군청 방문 민원인에 대한 출입통제 역시 강화되었다. 기존에 해오던 발열체크 및 출입자 등록 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층에서 방문민원인을 응대하고, 방문목적도 꼼꼼히 기록 중이다.

양양군, 내년 국비확보 총력전 나서

양양군이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군은 지난 2월 18일, 2022년 신규 및 계속사업 국비확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당사업과 연계한 정부예산 목표액을 2,29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3월 10일 국비확보 추진사업 담당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국비확보전략 강의 및 사업 컨설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국비확보 핵심대상 사업은 낙산~터미널~공항~서피비치~죽도 서핑구역과 연계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작은 도서관, 현남면, 현북면의 '불편 없는 생활 조성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신재생 에너지 융 · 복합 지원 사업 등 주거 · 관광기반 확충 사업이다.

쓰레기 종량제 실천 우수마을 인센티브 확대

양양군이 쓰레기 종량제 실천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군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읍 · 면별 2개 마을, 총 12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하고 각 이백오십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우수마을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마을별 종량제 실천*, 자원순환**, 환경정비*** 3개 분야 7개 항목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 쓰레기 임시보관 시설 등 거점수거장소 청결상태
** 영농폐비닐 보상금 지급실적
*** 마을 대청소활동, 주민 참여도 등

양양군,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 총 103대 구매 지원

양양군은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15억8천만 원을 투입해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전기승용차 32대(한대당 최대 1,320만원), 전기화물차 55대(한대당 최대 2,400만원) 등 총 103대에 대한 구매지원을 지난 3월 8일 시작하여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 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완료하면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이 취소되므로 기간 내 출고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문화 개선'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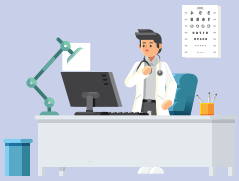
양양군이 소통과 공감, 배려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군은 '젊어지는 조직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과 가치를 진단하여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소통과 배려의 문화조성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만족도 △회의문화 △소통과 협업 △리더십과 역할 △개선의견 등 7개 분야 33개 문항에 대해 '조직문화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신규 공직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직문화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수렴을 통해 개선의견 등을 취합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군은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과 세대 간 통합을 위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 복지시설 대상 LED 조명등 무상 교체

양양군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LED조명은 백열등, 형광등 등 기존의 조명기기에 비해 약 50% 정도의 전기 절감이 가능하고, 수명도 50,000시간 이상으로 에너지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은 올해 5,670만원의 예산을 들여 LED조명등 무상 교체사업을 신청한 관내 저소득층 35세대와 현북면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LED 조명등 무상 교체를 지원한다.

조명등 교체 공사와 함께 전·후 전기시설 안전검사가 병행되며, 향후 1년 간 하자보수와 월별 에너지사용량과 절감량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위암의 예방

여러 종류의 악성종양(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환되는 암은 위암이다. 양양군민의 경우 위암 〉 폐암 〉 대장암 〉 간암의 순서로 많이 이환되고 있다. 위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명확하게 관련된 인자는 나트륨이 다량 포함된 고염식품의 섭취이며, 그 외에 탄 음식이나 훈제 식품의 과다 섭취, 아질산나트륨 등 방부제가 들어간 식품 등이 관련 인자이다. 한국인의 나트륨 하루 섭취량은 2010년에는 4830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로 부터의 권장량인 2000mg (소금 5그램에 해당)보다 2.4배 이상으로 과한 섭취 습관을 보였다. 다행스럽게도 국가적으로 나트륨 소비 적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2018년엔 30%가 줄어든 3274mg으로 감량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엔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가 "세계 고혈압 연맹"으로부터 나트륨 줄이기 우수 기관상을 공동수상하였다.

나트륨의 함량이 높은 식자재는 소금(369g/kg)이 가장 높고 이어서 새우젓, 간장, 짜장소스, 멸치 등이 높다. 음식 메뉴별 1인 1회 분량안의 나트륨 함량은 칼국수가 3000mg으로 아주 높고, 이 외에도 찌개류(2100mg), 콩국수(2000mg), 생선조림(1900mg), 수퍼슈프림 피자(1700mg) 등이 고나트륨 메뉴에 속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꾸준한 식단개선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겠다. 가장 먼저 실행할 것으로 국그릇의 크기를 지금의 반 정도 작은 그릇으로 바꿔서 섭취량을 줄이고, 김치 · 젓갈 · 장아찌 등 짠 음식은 밥상위에 하나만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칼국수 · 찌개 · 콩국수 · 라면 · 생선구이 등의 섭취량과 빈도를 우선 줄여나가도록 하고 국이나 찌개는 너무 뜨겁게 먹지 않도록 한다. 너무 뜨거우면 짠 맛을 덜 느끼게 되어 자꾸 간을 더하게 되기 때문이다.

위암 발생 위험군을 분류해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2배 이상 발병 빈도가 높고, 동일 세대 안에 위암 환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가계의 구성원은 한명도 없는 가계의 구성원에 비하여 2~3배 높고 그 가운데서도 헬리코박터균 양성자인 경우 5배까지 발병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가족들이 어머니가 해 주시는 음식을 둘러앉아 똑 같이 먹는 생활 습관적 특징 때문이며 이런 연유로 가족력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상기한 여러가지 식개선 활동은 "소극적 예방활동"이라 칭한다. 이에 더욱 적극적인 예방법은 위장관 증세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 혹시 발병되었더라도 조기에만 발견되면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이기에 이를 "적극적 예방법"이라 부른다.

양양군 보건소장
권 성 준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3. 17.)에서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아닌 교육지원센터가 존재하는 우리군의 부당한 교육현실과 관련하여 양양지역 2천여명의 학생들이 더 나은 복지혜택과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양양교육지원센터의 기구 확대를 촉구하는 「양양교육지원센터 기구 확대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의원들은 양양교육지원센터 기구 확대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3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사업이 물류 운송을 목적으로 양양 시내권을 관통하여 도시가 양분화 될 것이라는 우려와 정확한 노선도 및 신설 양양역사의 위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길 강력히 건의하는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사업 주민설명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택철의원은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역사 위치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의문 제출 취지를 밝혔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9건의 조례안 심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균)는 3월 17일 위원회를 열어 의원발의된 조례안 3건(제정)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제정 3건, 개정 3건)을 심사했다.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의원들은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동해북부선과 양양군 발전전략」 포럼 개최

양양군의회는 지난 2월 25일 「동해북부선과 양양군 발전전략」을 주제로 강릉원주대학교 김영식 교수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동해북부선 철도와 양양군 지역 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철도 노선 및 역사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동해북부선 철도가 어느 지역을 경유하여 어느 위치에 역사가 신설되는지, 여객용인지 물류운송용인지 등에 대한 정보들을 군민들에게 전달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의성 의장은 "우리군에 동해북부선 역사가 신설됨에 따라,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그로 인한 우리군 발전전략 등에 대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였다"며 개최 소감을 전하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동해북부선 철도는 여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류운송을 위한 철도일 수 있다는 문제와 장기적 경제관점에서 볼 때 도시 양분화로 인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이에 동해북부선 철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조선 정조(正祖) 때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가 양양현(襄陽縣)으로 강호(降號)된 배경은 ?

양양 출신 이경래(李京來)가 역모사건에 연루되었다

조선 정조 7년(1783)에 역모(逆謀)사건에 연루된 이경래의 고향이 양양이라 하여 양양현(襄陽縣)으로 강호(降號)되었다가 정조 16년(1792)에 강호기간 만료로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로 회복되었다.

양양출신인 이경래는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하여 이인(異人)이라하였는데 송시열(宋時烈)의 현손인 송덕상(宋德相)과는 사제(師弟)관계로 정조 즉위에 공을 세운 홍국영(洪國榮) 일파의 추천으로 조정에 등용된 만큼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했다.

그러나 도승지 홍국영은 정조의 외척으로 그 권력은 날로 비대해졌고, 반대파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마침내 홍국영은 실각됐고 그 여파는 송덕상에게도 미쳐 결국 조정에서 물러나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송덕상(宋德相)을 따르던 이택징(李澤徵), 권홍징(權泓徵), 이유백(李有白) 등이 계책을 세워 군사를 일으키려하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꾸미고 적극 동참한 역모사건(逆謀事件)이 발생하는대 그 중심인물이 바로 송덕상의 제자인 문인방(文仁邦)과 양양의 이경래(李京來)였다.

이경래는 도원수의 책임을 맡고 도성을 공략하려했다

거사(擧事)를 모의한 양대 주역 이경래와 문인방의 첫 만남은 사건이 발각되기 10년 전인 영조 48년(1772) 금강산의 대찰인 유점사에서 이루어졌고, 양양 이경래의 집에서 4일간을 머물며 친교를 쌓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현실개혁(現實改革)'의 문제나 '거사모의(擧事謀議)'에 대한 문제를 꺼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조가 즉위한 1777년 8월에 이들이 다시 만나면서 일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경래는 이름을 이해수(李海壽)라고 바꾸기도 하면서 자칭 팔도도원수(八道都元帥)로서, 이르는 곳마다 힘이 세어 쓸 만한 무리를 규합하고 대계(大計)를 실행하려고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규합된 무리(속칭 군사)로 양양부를 먼저 습격 점령하고 이어서 간성과 강릉을 습격한 후 대관령을 넘어 원주를 공략하고, 그 여세를 몰아 도성(都城)으로 진격하려는 만반의 준비를 세워 놓았다.

박서집의 밀고로 관련자들은 일망타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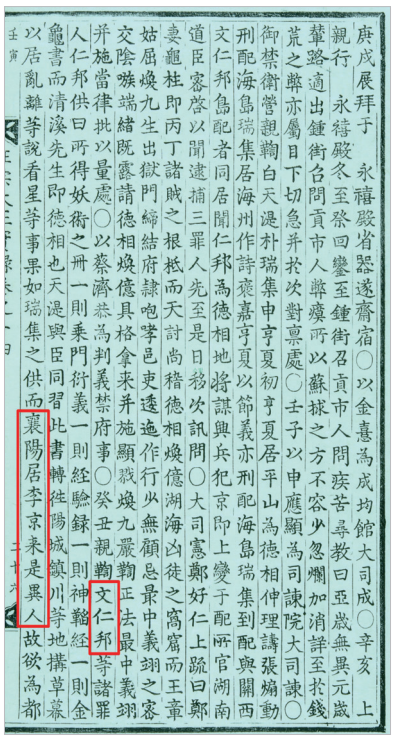
박서집(朴瑞集)은 송덕상을 추종하던 황해도 해주의 선비로 전라도의 한 섬으로 귀양을 갔다. 어느 날 유배지에서 우연히 문인방과 동거하게 되었는데 문인방은 놀랍게도 본심을 털어놓았다.

그는 송덕상의 억울한 처지를 생각해서 장차 군사를 일으켜 서울로 쳐들어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박서집은 겁이 나서 그 섬의 유배자(流配者)들을 관리하는 자에게 문인방의 역모사건을 밀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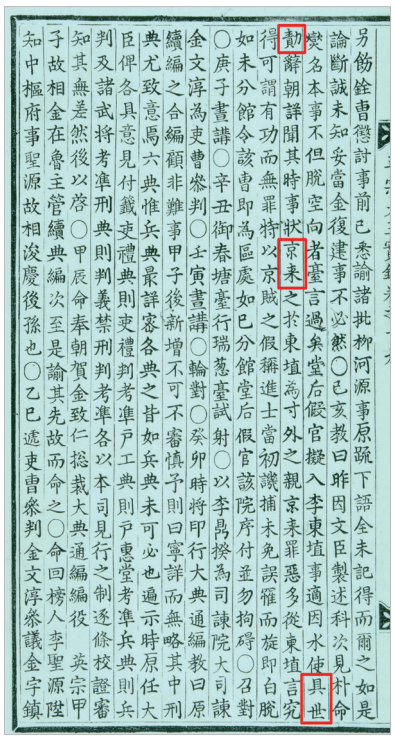
그 섬은 전라도 관할이어서 깜짝 놀란 전라관찰사는 급히 체포령을 내렸는데 이미 잠적한 이경래를 제외한 다른 관련자 전원을 체포하였으나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구세적(具世勣)은 1782년에 양양부사로 부임하였는데 이경래의 역모로 양양부는 1783년 현(縣)으로 강호되었고, 구세적은 부사에서 현감으로 강등되었다. 구세적은 역적 이경래를 체포하려고 무과(武科)출신인 자기의 조카 장사 구납(具納)을 불렀다. 상감(上監)은 구납에게 선전관(宣傳官)을 제수(除授)하고 '암행어사'를 겸하게 하였다.

구납은 휘하에 유명한 포교(捕校) 변시진(卞時鎭)과 양양의 병력 50명을 동원하여 천하장사로 신출귀몰하는 이인(異人) 이경래를 금강산에서 유인 체포한 후 조정으로 압송하여 극형(1785년)에 처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역모사건(逆謀事件)은 일단락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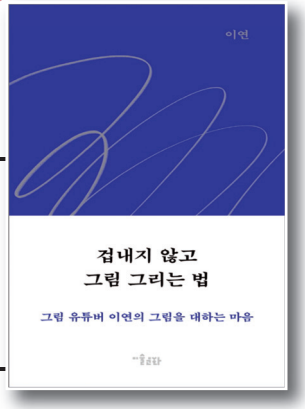
정조실록 정조6년(1782)11월20일癸丑



정조실록 정조9년(1785)2월19일己亥

〈금강산 유점사 전경〉

이달의 책이야기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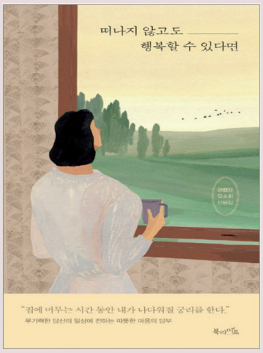
이연 지음 | 미술문화 | 2021. 3월

그림을 그리는 기술보다도 그리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크리에이터,
53만 구독자에게 그리는 삶을 선물한 그림 유튜버 이연의 첫 번째 책

이연은 5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독보적인 미술 크리에이터이다. 거침없는 그의 손끝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멋진 드로잉 한 점이 완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토록 많은 이들이 그의 영상을 찾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비싼 장비를 쓰는 것도, 극적인 연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그의 덤덤한 어투 어디가 구독자들의 간절함을 건드리는 걸까?
영상을 훑어보면 의문은 쉽게 해소된다. 이연은 그리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삶의 태도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는 창작의 동력을 기술보다도 마음에서 찾는다. 마음만이 지속성을 보장하며, 지속할 수 있다면 기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다. 단번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법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리는 삶을 바랐던 이라면, 그의 든든한 조언을 나침반 삼아 예술의 세계를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속 한 구절
■ 내가 겪은 바에 의하면 멋진 일은 대개 두려움을 동반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그 여정은 험난하다. 그럴 때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내가 지금 굉장히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_본문에서
■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생각도 했다. '또 내 자서전의 에피소드가 풍부해지고 있구나.'
참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지만 그런 마음들이 꽤나 도움이 된다. _본문에서

이달의 추천 신간도서



떠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

오소희 지음 | 북라이프 | 2021. 3월

"지금 필요한 것은 영화처럼
누군가의 또 다른 삶을 구경하는 일이 아니다.
그냥 내 순간을 사는 것이다."

떠남이 제한된 시기, 모두가 집에 머물며 깨달은 사실이 있다. 떠나지 않고도 행복해지는 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답답한 일상을 환기해줄 특별한 장소를 찾아 떠나던 과거의 방식 대신, 지금 머무는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 '자기만의 세계를 가꾸는 이들의 멘토' 오소희 작가의 존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철학 시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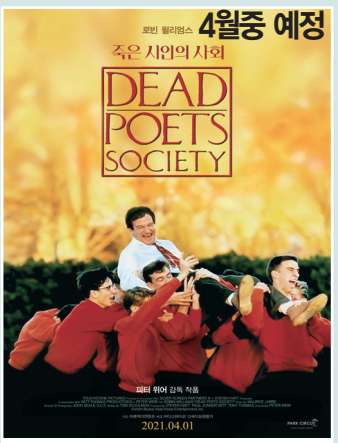
라이너 지음 | 중앙북스 | 2021. 3월

유튜브 누적 조회 수 8,000만!
대한민국 대표 영화 유튜버 라이너가
필름에서 길어 올린 철학적 카타르시스!
11명의 철학자와 11편의 영화가 만나는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영화는 때때로 현실보다 더 리얼하게 우리의 미래 또는 현재를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영화 속 세계에 몰입하게 되며, 바쁜 일상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삶의 가치와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철학은 '나'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다. 삶에 대한 본질적 질문은 자신만의 생각으로 삶을 그려나가게 만든다. 그렇기에《영화 유튜버 라이너의 철학 시사회》는 영화와 철학의 크로스오버, 그 자체만으로 이미 흥미진진한 책이다.

글, 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영화관사정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상영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3-673-7050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주식회사 윤진(홈마트)	1명	매장계산원	19:00~22:00 (주5일)	시급8,720원
일양종합금속(주)	2명	창호설치원 (경력자 우대)	08:30~18:00 (주6일)	월200만원 이상
㈜세인	3명	금속구조물 제작.설치원	09:00~18:00 (주5일)	월250만원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182만원
부경산업개발(주)	1명	토목현장 기술자 (경력자)	시간협의 (주6일)	연4,000만원
㈜매홍엘앤에프	1명	마케팅기획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210만원
푸른하늘환경(주)	1명	수질환경기술자 (자격증소지자)	09:00~18:00 (주5일)	연2,400만원 이상
	1명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원	09:00~18:00 (주5일)	연2,400만원 이상
네오팜	1명	음료생산 및 포장원	09:00~18:00 (주5일)	연2,400만원
(유)양양자활 환경자원센터	1명	재활용분리선별원	09:00~18:00 (주5일)	월182만원
심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명	아파트 시설관리	격일근무	월230만원
디모테오꿈마을 소규모요양원	2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 이상
	3명	요양보호사	대근무	월183만원 이상
㈜서종글로벌 (센텀마크호텔)	10명	룸메이드	08:00~17:00 (주5일)	월200만원 이상

2021년 군민정보화교육 일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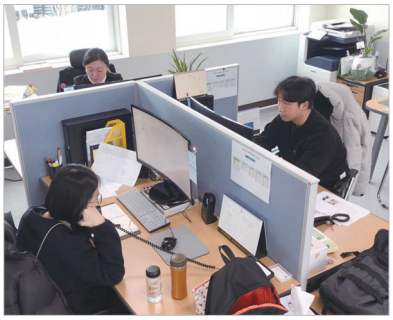
월별	기 간	접수기간	수 강 내 용
5월	5. 3 ~ 5. 27. 주간 (화,목) 야간 (월,수,목)	4. 26. ~ 4. 30.	(주간) 엑셀 입문반 및 스마트폰 활용
			(야간) ITQ한글 및 ITQ엑셀(강의 및 실습 병행)
6월	5. 31 ~ 6. 24. 주간 (화,목) 야간 (월,수,목)	5. 24. ~ 5. 28.	(주간) 파워포인트 입문반 및 스마트폰 활용
			(야간) ITQ한글 및 ITQ엑셀(강의 및 실습 병행)

- 장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
- 인원 : 15명(선착순)
- 시간 : (주간반) 10:00~12:00(화,목) / (야간반) 18:30~20:30(월,수,목)
- 신청방법 : 전화(☎033-670-2116)

* 교육일정 및 수강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육이 부득이하게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꾸러미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양양군 도시재생 사업의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3월에 설립 개소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과 주민, 전문가, 행정간 소통의 가교가 되는 중간지원 조직이며,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행복한 양양, 희망찬 양양, 밝고 활기찬 양양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의 효율적 추진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양양군이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특화 자원을 발굴 · 연계하여 새로운 활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낙후된 도심의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가교가 되어 다원적인 주체의 참여에 의한 도시재생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층에 있는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에게 항상 열려 있으며 센터에 들러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편하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향후 도시재생대학과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양양군 도시재생을 이끌어 갈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위치 :** 양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층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3-23)

▶**전화 :** 033-671-6900

2021년 농지은행사업 시행계획 알림

ㅁ신청기간 : 2021. 2월 ~ 예산 소진시

ㅁ사업내용

- 농지연금지급 : 만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
- 경영회생자금지원 : 농가 부채로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 하도록 지원

ㅁ신청방법 : 방문상담 및 서류접수

ㅁ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630-0113, 630-0122)

202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동참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십자 운동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십자 운동은 우리 사회가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구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설립 이래 지난 116년간 인류의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며, 사랑과 봉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앞장섰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어렵던 시절, 소외된 이웃을 감싸 안았고, 재해와 재난이 발생할 때면 누구보다 먼저 치료와 봉사에 솔선수범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는 소외계층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십자사는 전국 7개 적십자병원 및 15개 혈액원 등을 통해 방역과 구호활동을 이어가며 국난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적십자 정신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회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유례없는 전염병이 지속되는 시대에 이러한 적십자 정신은 모든 국민이 존중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드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관심으로 적십자회비 모금 등 적십자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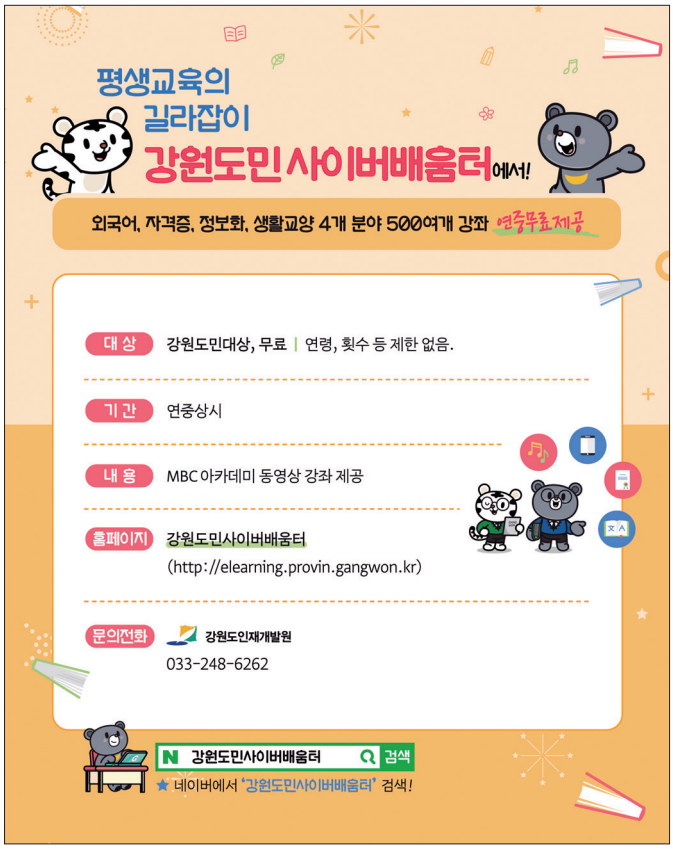
2021년 2월 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대전광역시장 (감사)	허태정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경기도지사 (부회장)	이재명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남도지사 (부회장)	김경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보꾸러미


평생교육의
길라잡이
강원도민사이버배움터에서!
외국어, 자격증, 정보화, 생활교양 4개 분야 500여개 강좌 영주쿠폰제공
대상 강원도민대상, 무료 | 연령, 횟수 등 제한 없음.
기간 연중상시
내용 MBC 아카데미 동영상 강좌 제공
홈페이지 강원도민사이버배움터
(http://elearning.provin.gangwon.kr)
문의전화 강원도인재개발원
033-248-6262
강원도민사이버배움터 검색
네이버에서 '강원도민사이버배움터' 검색!

양양군 온라인
관광안내소
OPEN
양양군 관광안내소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립니다.
'양양ON'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세요
매일 09:00 - 18:00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A
할 수 있어요!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A
할 수 없어요!
말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산림청

불법소각,
당신의 생명도 태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논·밭두렁을 태우시나요?

농촌에서의 불법소각, 모든 것을 태우는 어리석은 습관입니다.